



한국의 조상숭배사상에 관한 성경적 비평

The Ancestor Worship in Korea and Biblical Criticism

저자 (Authors)	심종석 Chong-Seok Shim
출처 (Source)	로고스경영연구 11(1) , 2013.3, 81-100 (20 pages) Logos Management Review 11(1) , 2013.3, 81-100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로고스경영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124771
APA Style	심종석 (2013). 한국의 조상숭배사상에 관한 성경적 비평. 로고스경영연구, 11(1), 81-100.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한국의 조상숭배사상에 관한 성경적 비평*

심 종 석**

<요 약>

한국의 조상숭배사상의 근원이 되고 있는 효에 관한 종교적·윤리적 가치편차의 문제는, 광의적으로 효의 본원적 내재원리에 기반을 두고, 성리에 입각한 윤리적 배경위에서 조상숭배를 강조하고 있는 유교적 사상과, 종교적 유일신앙을 기저에 두고 단지 효를 인간본연의 의무 내지 윤리적 덕행으로서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는데 있다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환언하면, 유교적 제례의식과 기독교신앙과의 충돌은 신관과 인간관의 차이에서, 곧 종교와 윤리와의 혼돈에서 비롯된 충돌이라고 함축할 수 있다. 이 같은 논점은 그 구현과 형식에 있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상적 다툼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본고는 이 같은 양자의 추구하는 바 그 가치를 변별하여 향후 저마다의 바람직한 제례의 미래상을 확보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사상적·종교적 이해의 정체성을 분별하여 기독교신앙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사의식의 미래상을 발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그 핵심은 조상에 대한 인식과 제례의 형태가 소위 기복 내지 길흉화복에 관련된 기원과 추앙에 목적을 두어서는 결단코 배척되어야 하고, 기독교신앙과 미풍양속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제례의식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성경적 시각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신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 새긴 우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만든 형상도 아닌 이 세상에서 죽었던 조상이 주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죽음을 극복한 신앙의 조상이 되어 주와 함께 낙원에 거하고 있다는 또 다른 믿음에 비추어, 신앙을 계수한 조상에게 제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기독교신앙에 입각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반 성경말씀에 비추어 이를 피력하였다.

한글색인어 : 조상숭배, 효, 삶과 죽음, 신앙과 믿음, 기독교신앙

* 본고 연구결과에 기하여, 성경적 시각을 올바르게 덧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대구 남산교회 서영직, 서정필 목사님과 두레교회 심정택 장로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말씀을 드린다.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cyrus@daegu.ac.kr

논문접수 : 2013.2.15, 1차 심사 : 2013.3.18, 게재확정 : 2013.3.27

I. 머리말

1.1 문제의 제기

18세기 후반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된 시점에서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표출되었던 극렬한 충돌양상은 기독교 신앙의 내재적 인본사상으로서 주지하듯 신분 및 남녀차별의 배척과, 제사의식의 부정 등에 기한 사상적 갈등이 그 단초가 되었다. 이 같은 갈등은 이른바 폐제분주(廢祭焚主) 사건이 기화가 된 신해박해(辛亥迫害)를 필두로 이후 약 100여 년 간 천주교 탄압의 빌미로써 지속적으로 분출되었다.

한편, 이보다 때늦은 19세기 후반 전래된 개신교는 그 전파경로가 주로 양반사회에 집중되었던 천주교와는 달리, 하위 신분사회 저변에 용해되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던 까닭에, 천주교 박해와 같은 정치적 탄압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거나 시의적으로 이를 면탈할 수 있었다(Clark, 1997).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 신앙의 전파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교적 제례의식과 기독교적 유일신관은 끊임없는 반목의 구조속에서 불행히도 그 사상적·종교적 갈등의 폭과 범위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모름지기 당해 반목과 갈등의 핵심 키워드는 천륜사상(天倫思想)으로서 ‘조상숭배(祖上崇拜, ancestor worship)’의 당위와 유일신앙(唯一信仰)으로서 ‘우상숭배(偶像崇拜, idolatry)’의 배척¹⁾으로 대별할 수 있다(Janelli, 1992; Lee, 1988; Martina, 1987; Kyu, 1984; Scheffler, 1966).

이 경우 전자는 “조상숭배를 죽은 조상과 아직 생존해 있는 후손들 사이의 결합과 교제의 수단으로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에, 후자는 “죽은 조상은 여하히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논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희학, 2004; Dix, 1979).

이 같이 양분된 사상적·종교적 가치의 외연을 확장하면, 우선 전자는, 조상숭배는 죽은 조상들이 초자연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저승의 조상들과 이승의 후손들 간의 교제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조상들을 위해 행하는 일종의 윤리적 돌봄 행위 및 그 의무로 당해 가치를 확립하고 있고, 후자는 초월적이고도 절대적인 창조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최우선에 두고, 자식으로서의 효(孝, filial piety)는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손 간의 윤리적 관계로서 족하며, 여하히 그 자체가 종교화되거나 절대화될 수 없다는 신앙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이 옥, 2002; Sung, 1990; Larsen, 1998).

1) 본고에서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조상숭배의 어의(語義)를 사회통념상 일반화된 조상숭배의 의미를 포함하여, 이와 연관된 ‘제례의식’, ‘제례문화’, ‘제사의식’ 등을 합체한 광의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결국, 양자는 사후 영혼의 존재를 수용하고, 이로부터 부모에 대한 효를 인륜(人倫)의 근본으로 인정하고 있는 공통점을 엿볼 수 있으나, 다만 그 주장을 자아내고 있는 터전이 윤리적인 것이냐 종교적인 것이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유동식, 1986; Kim, 2000).

요컨대, 양자의 효에 관한 상대적 가치편차의 문제는, 광의적으로 효의 본원적(本源的) 내재원리에 기반을 두고, 성리(性理)에 입각한 윤리적 배경위에서 조상숭배를 강조하고 있는 유교적 사상과, 종교적 유일신앙을 기저에 두고, 단지 효를 인간본연의 의무에 가두어 조상에 대한 효는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윤리적 덕행으로서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고 이에 보답하는데 있다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언하면, 유교적 제례의식과 기독교신앙과의 충돌은 신관과 인간관의 차이에서, 곧 종교와 윤리와의 혼돈에서 비롯된 충돌이라고 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양자의 본원적 가치를 변별하여, 향후 저마다의 바람직한 제례(祭禮)의 미래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아가 이로부터 사상적·종교적 이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죽음과 사자(死者)에 대한 이해, 제례에 관한 미풍양속 및 관습, 사후세계에 관한 존재의 인식, 종교와 윤리 간의 배타적 관계성, 그리고 사자에 대한 조상숭배의 함의 등을 명료히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해의 타협점은 양자의 종교적·사상적 일치에 그 목적을 두어서는 곤란하고, 생래적(生來的)으로 그 태생과 연원이 다른 저마다의 종교적 및/또는 윤리적 가치를 명확히 분별하여, 이로부터 상호 대립과 반목의 여지를 불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유교적 시각이 아닌 성경적 시각에서 기독교신앙에 입각하여 조상숭배에 대한 명료한 성경적 해석으로부터 그 이해를 제고하고, 이로부터 바람직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일말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목적은 이후로 양자가 저마다의 종교적·사상적 본류에 대한 무지와 성급하고 피상적인 오해로부터 필요 이상의 적대감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정의 마련에 있다.

1.2 선행연구의 검토

본고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대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연구논문으로서 최길성(1983, 1988)은 한국 조상숭배사상에 기하여 연구사와 그 개념을 중심으로 유교제사의 성립과 조상숭배에 관한 토착과정의 근원을 피력하고 제사의 신앙의례의 연혁을 고찰하고 있다. 임돈희(1986)는 한국 조상숭배의 미래상을 제반 제례형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다변화되어 가는 현재 시대상을 접목하여 이후로 사회변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

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제례형태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이희학(2004)은 조상숭배와 구약성서의 애도의식들을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그 형태와 실상에 대하여 역사적·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당시 포로기 시대 제례형태가 소위 관습적이고도 지역적인 것이었음에 반하여 구약성서에서는 이를 선민의식으로 형해화(形解化)하여 오로지 유일신 아웨종교의 실존적 정체성을 명료히 확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종교적 시각에서 조상숭배사상에 대한 기원 내지 연원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유교적 시각에서 이동주(1992), 불교적 시각에서 송석구(1986), 기독교적 시각에서 박봉배(1963) 및 유동식(1986), 무속에 관하여 장주근(1986) 및 강신표(1986) 등의 연구가 있다.

다른 한편, 본고의 논제와 관련한 국외논문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숭배에 관한 관습적 형태를 시배별 역사적·고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Hurtado(2013), Rowley(1974), Levine(2006)의 연구와,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조상숭배사상에 대한 기원과 행태 및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그 제례형태를 소개하고 있는 Nguyen(2009)의 논문 및 현대 우리나라 가족구조에서 유교의 전통적 제례형태의 수용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Lee(1998)의 연구결과 등이 있다. 나아가 불교의 시각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Lewis(1984)의 논문을 이에 추보할 수 있다.

살피기에, 이상의 논문은 이슈별 또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교적·윤리적 시각에 주안점을 두고 조상숭배사상에 기한 제례형태나 그 기원 및 성경적 시각에서의 근원 등을 살피고 있는 공통점을 엿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한국적 정서에 순응하여 토착화된 한국의 기독교 문화에의 접근성 또는 바람직한 제례문화의 형성을 위한 연구결과의 집적 내지 개진에는 다소간의 미흡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당해 개별연구의 목적에 기하여 상호간의 시각차에 기한 웅당 당연한 결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고에서는 앞선 문제의 제기에서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기하여 이상의 논점을 본고의 차별적 핵심으로 두고자 한다.

II. 조상숭배사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유교의 조상숭배사상

유교사상에 있어서 가장 본원적인 특질은 가족중심의 도덕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 핵심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유교에서는 인간을 독립적인 개체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테면 이를 연결된 고리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유교의 역사적 인간관이다.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조상이 있어야 했고, 나아가 자기를 기점으로 또 다시 수많은 후

손들이 이어져 간다는 시각에서 유교는 이를 역사적 인간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유교에서의 조상숭배는 이러한 인간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최근덕, 1986; Palley, 1992).

그런데, 이 경우 유교적 조상숭배의 핵심으로서 제사(祭祀)에 관한 기원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속 또는 관습이 아니라, 중국의 것으로 치부되고 있음이 통설이다(Tang, 1995). 곧, 제사는 13세기 고려 말 공민왕 재위 시 왕정으로부터 강요된 풍속으로서, 당시 신분에 따른 제한적 제사규정(祭祀規定)으로 확립되어, 조선조 세조 때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법적·제도적으로 명문화되는 과정을 거쳐 그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후 이 같은 제사의식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누구나가 다름없이 조상의 범위를 4대까지 상향하여 제사의식으로 수용하게 되는 변천을 겪었다.

이후로 풍속과 관습에 기하여 계수된 전통적인 제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윤리적 성향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상신(祖上神), 참신(參神), 강신(降神), 초헌(初獻), 축문(祝文)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로서 신위(神位) 등을 종교적 성향으로, 효를 지속하기 위한 제례로서 기제(忌祭), 시제(時祭), 차례(茶禮), 묘제(墓祭) 등은 윤리적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유교적 시각에서 이 같은 조상에 대한 제례의식은 통상 후손들에게 계수할 일련의 전통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일련의 관습이고 문화이자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까닭에, 현재까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가운데 문화가 변모해도 여전히 일상생활의 중심적 지위를 보전하고 있다.

그 결과, 이 같은 제례의식은 가일층 조상 또는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 숭배로 발전하여, 급기야 후손이 조상들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소위 기복신앙(祈福信仰)으로 승화·발전하는 양상이 되었다. 요컨대, 조상숭배는 사후의 생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제례의식은 조상들이 천지(天地)와 지상 그 어디엔가 살아 있고, 또한 살아있는 후손들이 부를 때 언제고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그러나, 본래 유교사상에 비추어 이러한 확신과 신념에 관해서는 그 직접적인 근거나 배경은 찾아볼 수 없다. 곧, 통상 유교사상에서는 개인의 영혼불멸(靈魂不滅)에 관해서는 그 사상적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유교사상은 이 같은 조상숭배의 관습적 행태를 다름없이 수용함과 동시에 이를 계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이 같은 확신과 신념의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인다. 환언하면, 유교에서는 영혼불멸사상은 발견할 수 없으나, 다만 풍속적으로 사후생(死後生)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당해 추론의 근거로서, 유교의 태두(泰斗)라 할 수 있는 공자(孔子)가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도 현세에 보다 더한 관심을 집중하였고, 나아가 조상숭배 또는 영혼불멸에 대한

사상에는 회의적이었거나, 불가지론(不可知論)을 주창하였다는 사실을 이에 접목할 수 있다(이동주, 1992).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조상숭배의 목적이 조상자신에게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후손에게 있다는 것과, 제사는 조상신의 실제여부와는 관계없이 제사를 받드는 자가 효와 보은(報恩)의 성정(性情)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조상숭배에 대한 유교사상의 처지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내지 무속신앙과 합체하여 동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보편적 관습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이 융합된 조상숭배사상은 유교의 또 다른 정체성으로 치환되어, 이후 기독교사상과의 반목과 대립의 원인으로서는 기능하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되짚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각으로서, 기제와 차례에서와 같이 통상 4대를 모시고 있는 것은 후손이 사자를 추모(追慕)할 수 있는 기억과 이로부터 유지(有志)의 계승적 차원에서 이를 실제적인 조상의 한계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편으로 조상숭배사상의 미신적 구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는 본래 유교사상의 본질이라고도 호평(好評)할 수 있다.

2.2 불교의 조상숭배

불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조상숭배에 관하여, 유교적 시각에서의 비판은 신랄하다. 당해 비판은 불교의 멸인륜(滅人倫), 무군(無君), 무충(無忠), 무효(無孝)의 사상에 그 이유를 두고 있는데, 이는 불교가 최상의 사상적 지표로서 표창하고 있는 이세(離世)를 통한 ‘깨달음’[解脫, nirvāṇa]을 주장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송석구, 1986; Welbon, 1966). 이처럼 불교가 이세적이라는 주장은 불교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소위 인간세상의 차원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비판은 인간의 본질적 도리라고 이해되고 있는 천륜(天倫)인 십의(十義)가 학습됨이 없이도 저절로 그 속성에 결부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속세 내지 부모를 떠나 깨달음을 최선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인륜의 기초인 효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의 효에 대한 인식도 역시나 현실적으로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능히 후손이 이를 보은하여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을 앞세워 두고 있다. 이는 불교의 윤회(輪廻, samsara)사상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 곧 내가 자식이 되지만 다시 내 자식의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보은하느냐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내 자식도 내게 똑같이 응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소위 인과론(因果論, causationism)으로부터 그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송석구, 1986).

요컨대, 불교에서도 조상에 대한 보은을 중요시하고 또한 그에 대한 생활 속의 효에 대

한 실천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것보다도 더한 가치를 깨달음을 통한 이른바 중생(衆生, sattva)을 구제하는 것에 두고 있음에 비추어, 유교의 조상숭배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기에 그 방법과 가치평가가 상이함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상숭배나 그 신앙과 관련이 있는 제(祭)는 사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제례로서 존중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불교에서의 제(齋)는 일련의 부처에 대한 공양의식으로서 이와는 구별된다. 곧, 제는 그 공양과 정성의 대상이 부처인 반면에, 제는 조상신이나 노상의 넋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는 불특정 다수의 기복(祈福)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제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그 대상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만, 기복의 공통점은 상존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불교의 조상숭배는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되고는 있으나, 통념상 특이하게도 그 사상이 일련의 이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행하여진 의례마저도 이에 접목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를테면, 시식(施食)과 같이 죽은 친족들을 위하여 천도(薦度)와 제를 올리는 경우를 예시할 수 있다. 당해 의식은 죽은 부모 또는 일체의 고혼(孤魂)을 대상으로 법식(法食)을 주면서, 법문(法門)을 일러주고 또한 경전을 구독하며, 염불하는 등의 의식이다. 불교에서의 조상숭배는 이와 같이 제를 올리고 또한 기일에 공양하는 의식으로서 현재에도 다름없이 실천되고 있다.

2.3 무속의 조상숭배

유교도 불교도 아닌 본연의 미풍양속적 조상숭배의 모습은 전통적인 무속신앙으로부터 그 면면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당해 무속신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교의 제례의식과 융합하는 가운데 그 고유한 실상이 형해화(形解化)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신앙에서의 조상숭배 그 자체는 현재에도 신앙적인 사령제(死靈祭) 등에서와 같이 견고히 자리매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조선시대 이후로 견고히 확립된 유교사상의 일체성에도 불구하고 무속은 그 나름으로 본연의 사령숭배성(死靈崇拜性)을 간직하고 있다(장주근, 1986; Guisso, 1988).

본래, 무속은 가신신앙(家神信仰)으로부터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테면, 본가신신앙에는 곡령(穀靈), 조령(祖靈), 여신관념(女神觀念), 불교신앙성(佛教信仰性), 유교신앙성(儒教信仰性) 등이 합체되어 있다(Harvey, 1987). 이 경우 가신신앙은 가정단위의 신앙이지만, 유교적인 제례와는 그 갈래가 전혀 다르다. 성격상으로 유교제례는 남성들이 주가 되어 있음과 동시에 형식성·이념성·논리성 등이 주된 특질을 지니고 있음에 반하여, 무속의 가신신앙은 여성들이 주가 되어 있는 까닭에, 소박하고 현실적이며 정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가신신앙은 원초 이래로 점차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전승되어온 민간신앙의 한 갈래로 취급되고 있음이 통례인데, 이러한 무속적 민간신앙은 기성

종교들과는 달리 교주나 창시자가 없고, 교리나 경전 내지 조직 등이 느슨하며, 각별한 윤리관의 강조 또한 적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성향도 지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신신앙은 민간신앙의 성격을 가장 많이 띠고 있는데, 이를테면 민간신앙의 신관(神觀)은 흔히 다신다령교적(多神多靈敎的)인 성격이 농후하다. 이것은 가신신앙과 무속신앙 그리고 그 밖의 민간제례를 비롯한 마을신앙이 모두 기본성격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사령숭배성을 집약할 수 있는 상징체로 표창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시각에서 무속적 조상숭배신앙은 농경사회의 주술적(呪術的) 신앙을 근간으로 혈연신(血緣神)에서 지연신(地緣神)으로 확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무속적 조상숭배신앙은 자생적 민간신앙으로서 조상신 관념이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조직적 제례를 흡수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불교나 무속 그 자체를 철저하게 억압했던 유교의 독선적인 측면을 회피하면서 이로부터 약화된 사회적 기능을 민간신앙으로 대체하여 현재까지 그 존재를 면면히 계승해 가고 있는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무속적 제례는 그 근본정신이 효에 근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시대의 변천과정을 통해 묵시적으로 조상이 신격화되거나, 후손들의 기복의 주체로서, 이를테면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였다고 믿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해 제례가 이러한 축복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특질로 꼽을 수 있다(박봉배, 1963).

2.4 증산교의 조상숭배

모름지기,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신흥종교 가운데 증산교(甞山敎)는 조상숭배사상을 핵심적인 교리로 수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증산교는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형태로 인간을 이해한다. 곧, 증산교의 영육병진(靈肉並進)이라는 신관은 이를 함의한다.

학설에 따라서는 증산교의 경전에 나오는 다양한 신격(神格)을 분석하여 증산교의 신은 인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개념으로서 역사적 실존인물들이 신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김 탁, 2000). 이를테면, 신은 무한자로 인간은 유한자로서 격리 내지 분리되었던 기존의 보편적 종교사상과는 달리, 증산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평행적 관계로 보며, 이에 따라 신과 인간이 만나서 화해하는 것이 증산교의 소위 해원사상(解冤思想)으로 구현되고 있다. 즉,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 동일을 강조하여 유기체적인 연관관계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교류와 통일을 통해 최고 인간이 곧 최고신이 되는 연속적 발전체계로 이해하고 있음이 그 사상적 본질이다.

요컨대,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있는 제반 종교들과는 달리, 증산교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아있는 인간 자체를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인간이 사후에 신이 되어 제사라는 의례를 통해 자손들의 추모를 받다가, 4대라는 기간이 지나면 신령한 존재로 변화하거나, 우주의 기운으로 화해 사라진다고 한다.

결국, 증산교에서는 육신을 갖고 인간계에 태어난 부정모혈(父精母血)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령신(先靈神)이라는 영적인 존재들의 보살핌과 그 선택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조상숭배의 근원적인 이유가 생명으로서 탄생에 깊이 관여한 선령신의 은혜에 보답하여야 하는 것에 그 사상적 기치를 두고 있다.

한편, 증산교에서 제사행위는 실제로 신적인 존재들이 그 기운을 먹고 산다고 보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단순히 인간 사이의 의례차원을 넘어 신적인 존재들을 대접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자손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의 영혼은 흠향(歆饗)할 수 없고, 이에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기 힘들며, 나아가 자손을 두지 못한 영혼은 자손이 있는 영혼에게 빌어먹는 구차한 행위를 하였기에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증산교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해원의 완성을 위한 방편으로서 조상을 위한 제사를 가장 중한 교리로 또한 실제로 취급하고 있다.

2.5 소결

한국의 조상숭배와 이에 부수하는 제례의식은 그 기축사상을 효에 두고 있음이 자명하다고 보아, 이는 기독교사상에 비추어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 근원이 유사함을 살필 수 있다(김광덕, 1986; 최길성, 1986; 竹田昶, 1983).

그렇지만, 명확히 분리가능한 핵심적 사상의 차이는 한국의 전통적 조상숭배의 대상으로서 이를테면 선조(先祖)가 시대의 변천을 통해 묵시적으로 신격화되고, 나아가 후세를 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조상숭배의 형식으로써 제례가 이러한 축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박봉배, 1963).

만약, 이 같은 논리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면, 유일신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신앙인을 향하여 전통적인 한국의 조상숭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할 경우 이는 이교적(異敎的) 다신론에 편승하는 것임과 동시에, 십계(十戒)의 제1계명을 범하는 전격적인 우상숭배로서, 우리의 영혼과 또한 살아있는 육신에 붙이는 하나님께 대한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신앙인은 이 같은 추상같은

사실을 그간의 인류역사를 통해 낱알이 보아 왔고, 또한 다름없이 말미암고 전개되어갈 것임을 알고 있다.

Ⅲ. 성경에서 제사의식의 형태와 특징

3.1 기독교신앙에 기한 조상숭배에 대한 태도

기독교에서는 윤리적 가치로서 인류적 효의 근본정신에 대한 태도는 앞서 본 제반 제사제도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다. 예컨대, 십계명 중에 약속 있는 제1계명으로서 제5계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떠올리거나, 또한 이하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 다양한 서신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후에도 부모를 그리워 추앙하고 있음을 그 배경에 둘 수 있다(박봉배, 1963).

그러나, 이 같은 효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효라는 가치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 안에서, 곧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06:01)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안에 속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독교적 시각에서 효의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를 주께서 책망하셨거니와(마 15:04-06), 부모를 핑계로 하나님 나라를 저버린 자를 주 앞에 합당한 자로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막 10:29:30).

따라서, 앞서 본 제반 조상숭배사상의 근본정신인 효의 윤리적·종교적 가치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효에 대한 원칙은 아쉽게도 표면상 그 배타성으로 인하여 한국적 토양에 견고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 결과 현재까지 여타 종교 내지 사상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들과 상당한 정신적 괴리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하 기독교적 시각에서 조상숭배 내지 우상숭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상으로서 앞선 논점에 기하여 기독교신앙인의 제사의식에 대한 단초를 유추해 본다.

3.2 구약의 조상숭배

신학적 관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숭배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조상숭배에 관한 기록들은 다름없이 고대 이스라엘의 민간신앙으로 분류되거나 치부되고 있다. 다만, 문화인류학적 관점 내지 고고학적 관점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 조상숭배 관습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영진,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사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이 조상에 대한 제례가 있었음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신 18:10-11, 삼상 20:06, 시 106:28). 그렇지만, 구약성경에는 조상숭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구약성경이 내재하고 있는 신학적 입장과 여호와 유일신 신앙 때문으로 이해되는데, 그 결과 조상숭배를 우상숭배와 동일시하고 있다(김영진, 2006).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의식에 관한 기록은 대표적으로 출애굽 이전의 시기로 야곱의 장례와, 왕정시대 사울과 아브넬의 죽음에 관한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 그 형태는 대개, 옷을 찢거나,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르고, 상여를 매고, 이후 무덤 앞에서 애곡을 하거나, 조가를 지어 부르거나, 때로는 금식 등으로 행해졌다.

한편, 이러한 전통적인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형태와는 달리, 애굽에서 야곱의 장례절차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곧, 야곱이 애굽에서 죽자, 그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통곡(痛哭)하였다. 또한, 애굽 사람들도 그 당시 요셉이 총리대신의 지위에 있었던 만큼, 그를 위해 애굽 관습대로 70일간 곡(哭)을 하였다(창 50:01-03).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지내기 위해 자신의 수종의사(隨從醫師)에게 아버지의 시신에 향료(香料)와 향유(香油)를 넣어 미이라(木乃伊, mummy)를 만들게 하였다. 주치의들은 요셉의 명령대로 야곱의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넣어 미이라로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약 40일이나 소요되었다고 전한다. 당시 향을 시신에 넣어 미이라를 만드는 일은 전문적인 애굽인들에 의하여 종교적인 의식과 함께 이루어졌다.

야곱의 장례법은 당시 애굽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은 이교적(異敎的) 의식은 행하지 않았고, 다만 야곱의 시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수종의사에게 이 일을 부탁하였다. 이후 요셉 또한 110세에 죽은 후 같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루었는데(창 50:26), 결국 구약성경의 기록은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도 애굽의 장례풍습과 일치하고 있다(심종석, 2009).

여기서 요셉은 운명하기 전에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또한 너희는 필히 이 땅을 떠날 때에 나의 유골을 취하여 여기서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유언한다(출 13:19). 본 유언으로부터의 시사점은 당시 선민(選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례에 관한 확고한 신념은 매장장소, 곧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그 본향을 두고 있는 특성을 엿볼 수 있다(김영진, 2006).

요컨대, 구약시대의 조상숭배 내지 장례의식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두고 있다.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형식과 방법 등은 주지하듯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으로서 조상에 대한 제례의식은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데, 그 형식과 방법 등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성경사관에 비추어 신접(神接)이나 주술(呪術) 또는 점(占) 및 요술(妖術) 등은 죽임과 동일시되어 엄격하게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당해 제례의식 속에 미신적(迷信的) 내지 다신적(多神的) 형태는 여하히 배척되어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다음의 구약성경의 구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가장 앞세워 둘 수 있는 기록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출 22:20)의 기록이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출 22:18)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레 20:6)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27)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신 18:10)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사 57:3)

한편,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조상숭배 또는 우상숭배는 역사적 시각에서 최초의 종교탄압이라고 적시되고 있는 아합(B.C.869-850)왕의 왕비 이세벨을 통해 극명히 노출된다. 당시 이세벨은 세계역사상 최초의 종교탄압의 장본인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그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를 전국에 파견하여 여호와와의 제단을 파괴하고, 예언자를 무참히 살육하였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세벨이 블레셋으로부터 유입한 바알교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겨우 7천명이라고 하는 기록이 이를 증한다(왕상 19:18, 왕하 09: 36-37).

다른 한편, 왕국시대 북이스라엘의 경우 200년 19대 왕조를 거쳐 B.C.721년 앗수르(assuria)에, 남유다의 경우 350년 23대 왕조를 거쳐 B.C.586년 바벨론(babylon)에 망할 때까지, 이를 합쳐 42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예외없이 모든 왕조가 여호와와의 진노로부터 참혹한 종말을 맞게 된 한결같은 이유는 모름지기 우상숭배였다(심종석, 2004; 2011).

3.3 신약의 조상숭배

신약에서는 제사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 귀결된다(고전 10:20). 곧, 구약시대 각양의 제사의식은 관습의 형태, 종교적 일치성 그 밖의 정치적 내지 사회문화적 양태 등의 차원을 떠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부활의 믿음을 통해 말씀으로 폐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05:05-14)

이 같은 기록은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지 않고, 다만 생명의 기념을 우선하고 있다는 논리로 치환할 수 있다. 예컨대, 부활절과 성탄절은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독교사상은 다양한 신약성경의 기록으로부터 재확인 할 수 있는데, 당해 구절을 열거하여 해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사자의 혼령은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옥과 천국에 거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바(눅 16:20-31; 고전 05:06-10; 히 09:27; 계 20:11-15), 이에 영혼이 죽은 후 산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상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제사장으로서의 중재자는 예수님으로 특정하고 있는 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또는 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요컨대 죄의 본질로 취급되고 있다(행 26:23; 롬 01:02-05; 히 04:15; 벧전 01:03-04).

결국, 신약의 조상숭배는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나아가 제사의 형식과 본질은 부활의 믿음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본다. 아울러, 그 매개는 우리의 제사를 대신한, 곧 제사장 신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속(代贖)의 희생양으로서 예수님으로 그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딤후 02:05-06; 히 08:06, 09:15, 12:24). 이는 성서사관적 시각에서 앞서 본 구약성경의 여타 기록과 합체할 수 있는 예증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

IV. 맺음말

4.1 제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요건

고래(古來)로 인류사상에 비추어 효는 가장 큰 도덕적·윤리적 덕목으로 존중되어 왔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종교적 차원에서도 이는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의 차이에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될 무렵, 토착신앙 및 미풍양속과 가장 큰 충돌을 겪었던 원인은 모름지기 조상에 대한 제례를 바라보는 인식과 그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전통적 제사가 인류와 도덕에 기초한 효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한, 기독교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상적 가치를 우상숭배시 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구약시대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에 기하여 크게 울고 애통해 하며 칠일 동안 곡(哭)하였던 것이나(창 50:10),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죽음에 그를 위하여 삼십일 동안 애곡하였던 사실에 미루어 볼 수 있다(민 20:29).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창 15:15-16)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제사의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신 바, 곧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렘 16:06-07)는 말씀에 비추어서도 마찬가지로 당해 제사의식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엡 06:02)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 15:04-06)라는 말씀에서도 그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신앙관에 입각하여 이 같은 제례 및/또는 조상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반드시 경계하여야 할 요건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상에 대한 인식과 제례의 형태가 소위 기복(祈福) 내지 길흉화복(吉凶禍福)에 관련된 기원(祈願)과 추앙(推仰)에 그 목적

을 두어서는 결단코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곧, 종교적·주술적 의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 이는 마땅히 우상숭배가 되므로 다름없이 부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신앙과 미풍양속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그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인 제사(祭祀)를 무조건 우상숭배시 한 경향이 다분하였다. 그렇지만, 말씀에 비추어 주 안에서 조상에 대한 추모(追慕)는 마땅히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합리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를 주께서 책망하셨거니와, 부모를 핑계로 하나님 나라를 저버린 자를 주 앞에 합당한 자로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셋째, 제례의식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조상에 대한 제례로부터의 유익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05:19)는 말씀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1:04, 13:15-16)는 말씀에서 그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선을 행함 그리고 찬송에 두어야 한다. 이에 추모하는 조상도 산자와 다름없이 그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넷째,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죄(罪)와 동일시된다.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지니라”(마 22:32)는 말씀이 이를 증한다. 따라서, 살아서도 죽은 존재일 수 있고 죽어서도 산 존재일 수 있다. 결국, 육신의 죽음은 삶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완성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4.2 성경적 시각에서 바람직한 제사의 미래상

외견상 전통적 제사의식의 함축된 상징으로서 표창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절[拜]이다. 이는 주지하듯 전통적 제사풍속과 기독교가 충돌하였던 표면적인 이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다툼이 되고 있는 핵심쟁점이다.

절의 문제는 그간 기독교 내에서도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 준 조상을 기리고 이를 기억하는 효의 차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

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자의 주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절을 해도 무방하지만, 죽은 사람에게서는 절을 해서는 말썸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후자는 조상을 공경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습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기독교가 전래될 무렵, 전통적 유교예법과 대립하며 상당한 혼선과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이락로 애굽땅에서 나오게 된 야곱과 요셉의 경우를 빗대어, 논자는 한 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후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전자의 전적인 부정이 아니라, 앞서 본 제반 성경적 시각을 기초로 이를 선용(善用)하고 나아가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다. 곧, 전자 주장의 배경은 구약성경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 20:04-06)는 말썸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본 말썸을 바로 새겨보면, 새긴(graven) 우상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not make) 그것들에게 절[拜]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다(심종석, 2009).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새긴 우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만든 형상도 아닌 이 세상에서 죽었던 조상이 주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신앙의 조상이 되어 주와 함께 낙원에 거하고 있다는 또 다른 믿음에 비추어, 신앙을 계수한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논자 주장의 핵심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사음식을 배척하고 있는 종래 기독교적인 시각에서의 문제도 이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논자의 주장은 그 배경에 다음의 말썸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롬 4:16)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롬 11:01)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갈 03:07)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6)

기독교신앙인의 관점에서 종래의 제사 내지 제례의 명칭 또한 혹자는 추도(追悼) 또는 추모예배(追慕禮拜)로 강권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본래 추도라고 함은 사전적 의미에서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이를 오로지 추모예배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윤기석, 1969).

그렇지만, 선교적 차원은 차치하고서라도 제사는 끝이끝대로 제사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영문으로서 앞서 본 ‘ancestor worship’은 마땅히 ‘memorial service’로 치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02:09)

참된 신앙인은 무슨 일이든 결코 자기가 해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낸다고 믿고 행하는 사람일 것이다. 선교적 차원에서 이 같은 조상숭배 내지 제사의식에 관한 인식의 지평이 본고의 결과가 거름이 되어, 보다 견고해지고, 더욱 바람직하게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덕, “조상숭배와 사회의식의 원리 : 한국과 중국의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18, 1986, 109-128.
- 김영진,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숭배에 관한 연구,” *서양고대사연구*, 18, 2006, 95.
- 김중기, *신앙과 윤리*, 종로서적, 1992.
- 김 탁, “한국 신종교의 조상숭배,” *종교연구*, 20, 2000, 109-126.
- 박봉배, “그리스도교와 조상숭배,” *기독교사상*, 7(4), 1963, 16-23.
- 장주근, “무속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8, 1986, 95-107.
- 송석구, “불교와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8, 1986, 79-83.
- 심종석, *구약성서의 이해*, 이컴비즈넷, 2004.
- , *성서와 함께 떠나는 새벽여행, 크리스천투데이*, 2009.
- ,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세계경영사적 의의,” *로고스경영연구*, 9(1), 2011, 62-63.
- 유동식, “기독교와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8, 1986, 85-93.
- 윤기석, “조상숭배에 대한 윤리적 연구,” *기독교사상*, 13(11), 1969, 90.
- 이동주, “유교와 조상 숭배 문화권 선교,” *성경과 신학*, 11, 1992, 154-155.

- 이 욱, “제사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유교사상연구*, 16, 2002, 79-106.
- 이희화, “조상(사자)숭배와 구약성서의 애도의식들,”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 2004, 83.
- 최근덕, “조상숭배와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18, 1986, 181.
- 최길성, “조상숭배의 한·일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18, 1986, 129-146.
- , “한국 조상숭배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문화인류학*, 20, 1988, 153-166.
- , “한국 조상숭배의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15, 1983, 81-92.
- 竹田旦, “한일조상숭배의 비교연구,” *한국민속학*, 16, 1983, 394-398.
- Dix, G. M., “How to Do Things with Ritual : The Logic of Ancestor Worship and Other Offerings in Rural Korea,” *Studies on Korea in Transition*, 1979, 47-70.
- Guisso, R. W., *Shamanism : the Spirit World of Korea*, Jain Publishing Company, 1988.
- Harvey, Y. K., “The Korean Shaman and the Deaconess : Sisters in Different Guises,” *Religion and Ritual in Korean Society*, 1987, 149-170.
- Hurtado, L., “Ancient Worship in Israel,” *Biblical Archaeology Review*, Bible History Daily, 18, 2013, 43-46.
- Janelli, R.,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Kim, A. E., “Korean Religious Culture and Its Affinity to Christianity : The Rise of Protestant Christianity in South Korea,” *Sociology of Religion*, 61(2), 2000, 117-133.
- Kyu, L. K., “The Concept of Ancestors and Ancestor Worship in Korea,” *Asian Folklore Studies*, 43(2), 1984, 199-214.
- Larsen, U., Chung, W. J., Monica Das Gupta, “Fertility and son preference in Korea,” *Population Studies*, 52(3), 1998, 317-325.
- Lee, J. Y., *Ancestor Worship and Christianity in Korea*, E. Mellen Press, 1988.
- Lee, K. K., “Confucian Tradition in the Contemporary Korean family,” *Confucianism and the family*, 1998, 249-266.
- Levine, B. A., “Worship in Ancient Israel,” *Review of Biblical Literatur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8, 2006, 66-79.
- Lewis, L., “Buddhism and Family in East Asia in Religion and Family in East Asia,” *Senri Ethnological Studies (Osaka)*, 11, 1984, 139-151.
- Martina, D., “Neo-Confucianism in Action : Agnation and Ancestor Worship in Early Yi Korea,” *Religion and Ritual in Korean Society*, 1987, 26-55.
- Nguyen, van Thanh, “Ancient Prayer and Worship in Cultural Perspective,” *New Theology Review*, Liturgical Press, 22, 2009, 98-115.
- Palley, H. A., “Social Policy and the Elderly in South Korea : Confucianism,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Asian Survey*, 32(9), 1992, 787-801.

- Rowley, H. H., *Worship in Ancient Israel*, S.P.C.K.(London), 1973.
- Scheffler, H. W., et al. "Ancestor Worship in Anthropology : or, Observations on Descent and Descent Groups [and Comments and Reply]," *Current Anthropology*, 1966, 541-551.
- Sung, K. T., "A New Look at Filial Piety: Ideals and Practices of Family-Centered Parent Care in Korea," *The Gerontologist*, 30(5), 1990, 610-617.
- Welbon, G. Richard, "On Understanding the Buddhist Nirvāṇa," *History of Religions*, 5(2), 1966, 300-326.
- Zongli, Tang, "Confucianism, Chinese Culture, and Reproductive Behavior," *Population and Environment*, 16(3), 1995, 269-284.

The Ancestor Worship in Korea and Biblical Criticism

Chong-Seok Shim*

<Abstract>

Ancestor worship involves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consisting of prayers and offerings to the spirits of dead relatives. It was based on the filial piety. Prayers and offerings are made because it's believed the spirits of ancestors live on in the natural world and are thus able to influence the futures and fortunes of the living relatives. Ancestors' spirits are also thought to act as mediators between the living and the Creator. Death was not the sole criterion for being worshipped as an ancestor. The person must have lived a moral life with great social distinction in order to attain that status. Ancestors are believed to influence the lives of later generations by blessing or cursing them, in essence acting as gods. So praying to them, presenting them with gifts, and making offerings are done to appease them and gain their favor.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ancestor worship? First, the Bible tells us that the spirits of the dead go to either heaven or hell and do not remain in the natural world. The belief that spirits continue to reside on earth after death and influence the lives of others is not scriptural. Second, nowhere in the Bible are we told that the dead act as intermediaries between God and man. But we are told that Jesus Christ was given that role. He was born, lived a sinless life, was crucified for our sins, buried in a grave, resurrected by God, seen by a multitude of witnesses,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now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where He intercedes on the behalf of those who have placed their faith and trust in Him. There is only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and that is God's Son, Jesus Christ. Only Christ can fill that role. The Bible tells us in Exodus 20:3-6 that we are not to worship any god other than the Lord God. Furthermore, since diviners and sorcerers were thought to be able to contact the dead, they were also expressly forbidden by God. Ancestor worship is wrong because it goes against God's specific warnings about such worship, and it seeks to replace Jesus Christ as the Divi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kind.

Key Words : Ancestor Worship, Filial Piety, Living and Death, Faith and Trust, Christian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oreign Trade, Daegu University.